요呋

사명 앞에서, 믿음으로 견고한 성을 정복하라 (2023년 2월 12일 주일 설교) 🧏 제7주 여호수아 6:1-11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정복해야 하는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에도 한 고비를 넘기면, 다른 문제가 찾아오듯, 요단강을 넘었더니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제사장과 군사들이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일곱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누리기 위해 닫힌 문, 견고한 성 앞에설 때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었다는 동사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바도 알려 주십니다.

삶의 큰 문제를 만날수록 더욱 힘써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도 갖고,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을 보면, 거의 똑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또 그들이 그대로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조롱을 당해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에는 항상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경험과 방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언약궤가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은 나팔은 전쟁을 위해 불지만, 양각나팔을 부는 것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릴 때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전쟁이 아닌 예배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순종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자아를 죽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셋째,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주어진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날 양각나팔 소리가 나면, 함성을 크게 지르라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평,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찬송과 기도의 함성을 발하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말을 멈추고, 침묵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발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 장애물이 우리를 막고 있어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순종을 발걸음으로, 내 입술을 주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암송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받았느니라'(전도서 5:2)

이번 주 성경 통독

2/13(월)	2/14(화)	2/15(수)	2/16(목)	2/17(量)	2/18(토)	2/19(주일)
레27,민1	민2-4	민5-7	민8-10	민11-13	민14-15	민16-18

QT

이번 주 QT 말씀

2/13(월)	2/14(화)	2/15(수)	2/16(목)	2/17(금)	2/18(토)	2/19(주일)
삼상12:16-25	삼상13:1-12	삼상13:13-23	삼상14:1-23	삼상14:24-35	삼상14:36-52	삼상15:1-9

목장 나눔 문제

-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 2.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결심을 나누어 주세요.
- 3.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경험한 축복에 대한 간증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 4. 실제 믿음의 삶에서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경험을 통해 나누어 주세요.